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최상백 회장

"양돈인들의 대화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홍 보 부 -

Q1 부회장을 오래 역임하시다가 회장이 되셨는데, 회장 당선 소감은?

A IMF 한파로 경제가 어렵고, 특히 사료가격과 동물약품 등 생산원자재의 가격이 40~50%나 오르는 등 양돈 환경이 극도로 어려울 때 회장으로 선출되어 기쁨보다는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오랫동안 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양돈업계와 협회 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신 전동용 전임 회장님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현재 양돈업계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회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임원과 지부장님들의 중지를 모아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이 협회의 변화를 요구했다고 보고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Q2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협회를 운영해나갈 계획이신지요?

A 첫째-전체 양돈인들의 대화합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양돈협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양돈인들도 적극 포용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각 도를 순회해서 양돈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의견을 구하고, 또 모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협회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둘째-농림부를 비롯한 축산관련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축산업계의 처한 어려움을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해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협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넷째-정관이나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에 부합된 방향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최상백 신임회장이 지난 2월 18일 축산전문지 기자들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Q3 현재 양돈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임기중 양돈산업을 위해 중점 추진해 나갈 포부를 밝혀 주시지요.

A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양돈업계는 사료값 등 생산원자재의 폭등과 돼지고기 수입전면 개방으로 내우외환의 어려움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축산발전기금도 대폭 축소되는 등 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WTO 시대에 걸맞게 양돈인들이 중심이 되어 양돈산업을 발전시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조금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임기중에 민간주도로 양돈산업 발전을 기해나갈수 있도록 무임승차자 없는 자조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료가격이 폭등해서 양돈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생산비를 대폭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가배합사료를 활성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관련 제도를 고치고, 지역별로 자가배합사료를 생산·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분뇨처리시설 자금은 100% 국가에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축산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그밖에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생산·공급하고,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Q4 최근 양돈업계가 분열되어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A 양돈업계가 분열되어 있다는 시각은 잘못입니다. 그동안 협회가 양돈업계의 구심점이 되어 많은 일을 성취해 왔고, 또 양돈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많은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양돈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양돈협회에 참여하지 않고, 또 양돈관련단체간에도 원활한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으나, 각자 여러 가지 의견은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양돈인들의 협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부 조직을 대폭 확충하고, 협회가 전체 양돈인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양돈관련단체간에도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호흡을 같이 해 나가면서 전

체 양돈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관계를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Q5 신임 회장으로서 양돈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A 이제 돼지고기도 전면 수입이 개방되었고, 우리나라가 IMF 체제로 들어서는 등 양돈 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정부가 산업을 리드해 나갔지만 이제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산업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문제를 정부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양돈인들이 산업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 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양돈농가들에게 모두 협회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養豚

최상백회장 프로필

최상백(崔相白) 회장은 1931년 3월 10일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내고, 지난 52년 군에 입대하여 73년 소령으로 예편하였으며, 군생활하는 기간동안 춘천대학 상대를 졸업하였다.

최회장의 사회경험은 군생활 20년, 농장 경영 25년으로 구분된다. 소령으로 예편한후 오직 양돈장을 경영하면서 지부장, 도협의회장, 부회장 등 본회 관련업무만 20년을 봉사했다. 때문에 경남지역은 물론 전국의 양돈인들에게도 익숙하다. 특유의 경상도 억양은 무뚝뚝 하지만 정감이 넘치는 목소리로 사람을 대한다. 최상백 회장은 89년 당시 제2검정소 설립을 적극 주장하여, 경남·북, 전남·북, 제주도 지역의 양돈인들도 고능력 종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최상백 회장은 일생의 목표를 사회에 대한 봉사로 세우고 재향군인회와 양돈협회에서 봉사하고 있다. 최회장은 회장 선거 공약에서도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양돈인들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학력 및 주요경력

1964. 2. 28 춘천대학 상대 졸업
1968. 10. 1 소령 예편
1974. 11. 5 풍진농축산(양돈장) 대표
1978. 4. 8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마산지구 지부장(역임)
1982. 2. 18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이사(역임)
1986. 2. 18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부회장(역임)
1988. 4. 2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제2검정소 운영위원장(현임)
1993. 2. 27 사단법인 양돈산학협동연구회 제2대 회장(역임)
1995. 1. 26 마산시 재향군인회 제27, 28대 회장(역임)
1995. 7. 1 마산지구 라이온스클럽 협의회 회장(현임)
1997. 4. 25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본회 이사(현임)
1998. 2. 13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제13대 회장